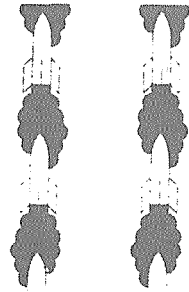


## 電子工業日誌



〈'94. 7. 1~7. 30〉

- 7. 1: 체신부, 통신사업 구조 개편(안)을 확정하고 시외전화 사업의 경쟁체제 도입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사업자 선정, 주파수공용통신(TRS)를 비롯해 저궤도 위성통신(LEO) 발신 전용 휴대전화 등 신규서비스도 도입된다고.
- 7. 2: KAIST, 전산연산이 많은 응용프로그램의 동작속도를 10배 이상 가속시켜 줄수 있는 연산보조처리장치 인텔 80387과 완전 호환이 가능한 프로세서 칩이 국내 독자 기술로 현대전자와 공동으로 개발했다고.
- 7. 2: 상공자원부,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대형컴퓨터 개발사업에 참여할 선진기술 협력 적격업체와 국내 기업을 선정하고 총 380억원을 투입 '97년까지 개발기로 했다고.
- 7. 4: ETRI, B-ISDN 사용자와 망간 접속시 적용되는 기능계층 가운데 물리적 계층(Physical layer)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칩(모델명 ASAM-P: ATM Subscriber Access Handler-Physical)을 독자기술로 개발했다고.
- 7. 5: 삼성종합기술원, 고밀도 광기록장치, 바코드 리더, 레이저 프린터 및 의료기기 등의 핵심부품으로 사용되는 적색 반도체 레이저 3종을 개발했다고.
- 7. 6: 상공자원부,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등 기술개발자금 지원제도를 WTO(세계무역기구) 체제가 허용하는 보조금 지급형태로 개편기로 하는 등 산업별 지원제도를 개선기로 했다고.
- 7. 11: 정부, 현재 45% 수준인 중소기업의 자동화율을 오는 '96년까지 60%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2조 5,000억원의 자금을 조달

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동화 시설 자금을 지원기로 했다고.

- 7. 12: 특허청, 지난 '90년부터 '93년까지 4년간 특허출원된 전자교환기 교환기술 중 패킷교환기술 특허출원이 연평균 53%의 급증세를 기록, 국내외 교환기업체들이 이 분야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- 7. 13: 상공자원부, 국내 주요 전자·정보업체의 상반기 설비투자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실적중 설비투자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46.2% 증가한 2조 5,35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.

- 7. 19: 공진청, ISO 9000 인증제도의 법적실시 근거를 마련키 위한 품질경영 촉진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확정됨에 따라 외국인증기관도 국내 인증기관과 동일하게 ISO 9000 인증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인증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인증기관으로 승인해 줄 방침이라고.

- 7. 20: 상공자원부, 지난 3월 공기반기술개발 지원대상 과제로 접수된 총 156개 신청과제에 대한 심사를

실시 이중 라디오 겸용 휴대형 CDP 등 82개 과제를 지원대상과제로 확정하고 총 68억 1,200만원의 정부자금을 지원기로 했다고.

- 7. 21: 환경처, 「기술장벽의 현황과 대응 방안」에 따르면 현재 세계무역기구(WTO)의 기술장벽 협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각종 기술규정 강화에 대응키 위해 국내 주요 산업별 대처방안을 올 연구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.

- 7. 25: 상공자원부, 공기반기발전문위원회를 열고 업종별로 5년내외의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적 핵심요소기술을 일괄 개발한다는 방침에 따라 금년부터 본격 시행중인 중기거점 개발사업의 대상과제로 LCD·멀티미디어를 비롯한 8개 신규과제를 선정했다고.

- 7. 26: 상공자원부, 첨단 바이오기기의 개발을 통해 국내 가전산업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에 따라 총 500억원을 투입해 외국 기술과의 격차가 가장 적은 디지털 VDR를 개발기로 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고.

- 7. 27: 상공자원부, 국내 전자·정보기기의 올 상반기 수출은 전년대비 142억 9,400만 달러, 수입은 20.9% 늘어난 93억 9,300만 달러에 달한것으로 집계 됐다.

- 7. 29: 상공자원부, '95년도 공기반기사업의 대상과제로 신청된 519개 과제에 대한 심의와 조정을 통해 192개 과제를 확정하고 이중 전자정보관련부문이 69개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 자동화 및 S/W를 포함한 정보진흥분야가 31개 과제, 부품·반도체분야가 18개 과제 통신·의료기기 및 생활전자 분야가 각각 7개 과제로 나타났다.